

목자라는 거울에 비춰 본 우리 사회

의고주의와 역사라는 거울

“옛날이 좋았지.” 현재가 불만족스러운 사람이나 현재의 문제를 타개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힌 사회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다. 과거를 이상화하고 모범과 기준을 과거에서 찾자는 생각은 의고주의 혹은 회고주의로 불리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없어지지 않은 사고 중 하나이다. 맹목적인 과거지향주의나 단순히 역사에서 교훈을 찾자는 시도는 문제가 있겠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현재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현재를 객관화하여 보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기 위해 역사라는 거울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역사를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사용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도식적인 일대일 대응이다. 완전히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썩 빼닮은 사건이라도 한 겹 두 겹 벗겨서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점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과거의 사건을 현재에 적용시키려 할 때 무리수를 둔다. 즉 사건의 본질을 읽어내어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중 한 사람인 목자(본명은 목적)의 사상을 살펴보고 그의 사상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갈등, 병리를 해결하는 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2500년 전의 중국이 처한 상황과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물질, 기술적 토대부터 사회구조와 사람들의 가치관 등 모두에서 너무나 다르다. 그럼에도 두 사회를 관통하는 본질은 존재할 것이고, 당시에 중국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사상적 모색을 한 목자의 생각을 분석해 보면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역사학자 지암바티스타 비코의 주장처럼 인간은 인간이기에 인간의 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춘추전국시대와 제자백가

인간이 모여 상호작용을 하며 사건을 만들고, 사건들은 어떤 경향성을 띠며 사회를 변화시킨다. 사회는 인간이 만들지만 어느 순간 사회 그 자체의 동력이 생겨 사회는 인간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동력은 문명이라고 부르는 물질적 제반 조건과 기술, 규범, 문화, 제도 등의 총체이다. 목자의 사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살던 당대는 어떤 현실적 조건을 가진 사회였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물론 목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들이 모두 목자와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다. 같은 시대를 살더라도 개인적인 성장환경,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지적 수준 및 기질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인간은 자신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본다. 프레임이 다르니 같은 세상도 달리 보일 것이고, 달리 보이니 문제도 다르게 인식할 것이고, 문제 인식이 다르니 그 처방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제자백가가 나온 이유이다.

춘추전국시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국의 역사시대가 시작되는 은나라부터 살펴야 한다. 은왕은 거북의 등 껍데기나 짐승의 뼈에 글자를 새겨 이를 불에 태워 변형된 내용을 가지고 점을 쳤다. 갑골문이라고 부르는 이 문자는 주로 제사, 전쟁, 수렵, 질병, 농업, 기상 등에 관하여 신탁을 목적으로 사용했다. 한자의 기원으로 알려진 갑골문의 존재는 당시 은에 살던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를 이루고 갈등을 겪으며 살았음을 알려준다. 은나라는 주왕의 폭정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었다고 알려져 있다. 무왕의 은왕조 멸망은 무왕의 독자적인 힘으로만 달성할 수 없었다. 여러 대부족장의 협조와 투항한 소부족장들이 힘을 보태지 않고서는 왕조 교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호족들과 제휴하기 위해 왕씨 성을 하사하고(사성정책) 호족들의 딸과 혼인을 하여 동맹을 강화한 일(결혼정책)도 유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주나라는 대안으로 왕실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을 제외하고 넓은 토지를 공헌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족장들에게 배분하고 이들을 제후로 봉하는 방법을 썼다. 이를 봉건제도라 하는데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가 철저하게 계약에 근거한 것이라면 주의 봉건제도는 혈연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이 혈연이 순수하게 피를 나눈 가족을 대상으로만 하지는 않았다.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입적시켜 대를 잇게 하듯이 주의 종법제도도 보다 넓은 의미의 혈연관계에 근거했으며 같은 조상을 갖고 있는 한 집안 사

람이라는 관념을 공유하는 작업을 면밀하게 하였다. 주는 종법 제도와 천명사상을 중심으로 정치제도를 확립하였다. 천명사상이란 일종의 왕권신수설인데, 유럽의 왕권신수설이 인격신이 왕 개인에게 권력을 주었다는 일대일 관계가 부각되는 데 반해, 주의 천명사상은 주 왕실의 지배권력의 정당성을 섭리로서의 하늘에서 찾으려는 사상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이니 천자니 하는 용어들은 이때 등장하였다.

기원전 770년에 주는 정치적 격변을 겪는다. 내분과 외환이 겹쳐 수도가 폐허가 되자 낙읍으로 수도를 옮긴 것이다. 이를 주의 동천이라고 하며[그림 1 참조], 이전 시대를 서주, 이 시기부터를 동주 시대라 한다. 동주 시대부터 춘추전국시대의 막이 오르며, 주 왕실의 권력은 약화되었다. 주 왕실이 직접 다스리는 토지는 점차 줄었고, 제후들은 더 이상 주 왕실에 공물을 바치지 않아 주 왕실은 경제적 궁궁마저 겪어야 했다. 따라서 주 왕실의 수도 낙양은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제후국의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커졌고, 제후국들은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일차적으로는 주 왕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으며, 이차적으로는 다른 제후국들과 패권을 놓고 다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왕실은 분쟁의 중재자 역할은커녕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천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주 왕실과 천자는 상징적 지위만은 지키고 있었다. 그것이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나누는 기준이다. 전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완전한 약육강식의 시대가 펼쳐졌고 하극상은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특정한 지배적인 권위가 없는 사회는 무질서하고 혼란하지만, 이를 뒤집어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큰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면서 교육의 기회는 평민에



그림 1. 주의 동천 (호경 → 낙읍)

게까지 확대되었다. 게다가 제후국들 간의 쟁투가 한층 격렬해지면서 각국의 왕들은 더 능력 있는 인재를 많이 필요로 했고 이에 따라 신분보다는 능력을 우대하는 풍조가 확대되었다. 경제적, 기술적으로는 우경법(소가 쟁기를 끄는 일)과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되어 대토지 소유자가 등장하는 대신 상공업이 발달하여 상업으로 돈을 번 대상인도 나타났다. 춘추오패와 전국 칠웅이 천하의 패권을 놓고 다투면서 구귀족은 몰락하고 신흥 귀족이 등장하였고, 능력을 갖춘 평민도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잉여생산물이 축적되자 학술과 문화 발달의 조건은 이전 시대에 비해 성숙하였다. 제후들은 부국강병을 위하여 국적을 막론하고 인재를 찾았으니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제자백가가 나타나 쟁명하며 자신의 뜻을 펼쳐 보려는 노력을 하였다. 한자에서 자(子)는 학문적, 사상적 업적으로 독자적인 위치에 이른 사람을 일컬으며, 가(家)는 그러한 자(子)들이 제자를 받아 그룹을 이룬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제자백가는 '여러 사상가들과 그들이 이끄는 많은 지식인 그룹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제자백가에는 유가, 도가, 법가, 묵가, 음양가, 병가, 명가, 농가, 종횡가, 잡가, 소설가 등이 있었는데, 후대에 비교적 영향을 오래도록 끼친 것은 그중에서도 유가, 도가, 법가, 묵가, 병가, 음양가 정도이다.

묵자와 묵가

묵자(墨子)는 존칭이고 본명은 묵적이니 성은 묵(墨)이고 이름은 적(翟)이다. 묵가의 주장을 모은 책도 《묵자(墨子)》라 한다. 묵자는 태어난 나라도 불분명하고, 태어나고 죽은 해도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공자보다 조금 뒤, 맹자보다 조금 앞이라고 짐작할 뿐이다(BC 470?~BC 390?).

묵(墨)은 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로부터의 설이다. 그러나 묵은 묵형(墨刑, 이마에 먹으로 문신을 새기는 형벌)을 일컫는 말로서, 당시 주나라에서는 지배층은 형벌로 다스리지 않았고 피지배층에만 형벌을 가했으니 묵자는 하층민 출신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어떤 연구자는 검은 피부 때문에 묵씨라 불렸다 주장하기도 한다. 오늘날 노동자를 블루칼라라고 부르듯이, 피부가 검다는 것은 그가 노동을 하는 계층이었음을 말해 주는데 이 역시 묵자가 노동을 하는 평민 계층이었음을 알려준다. 실제로 묵자의 주장 속에 먹줄 같은 노동 도구들이 비유로 많이 등장하는 것이나, 그를 따른 그룹이 대부분 하층 무사 집단이나 기술자 집단이었던 것도 역시 그의 출신 계층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의 사상 또한 가진 자가 아닌 피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묵자는 춘추전국시대의 다른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사상을 펼치기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으나, 그의 사상이 지배층의 이익을 위한 부국강병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했다. 게다가 민중을 옹호한 묵자의 사상은 진나라에 의한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어 가면서 약해지기 시작했고, 통일 이후 법가에 기반한 중앙 집권적 전제주의가 강화되자 묵가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갔으므로 그의 경력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봉건적 사회체제의 해체 과정에서 당시 각 나라는 국내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전제주의화, 대외적으로는 전쟁과 정복에 의한 대국화(大國化)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 것에 반



그림 2. 목자

대했던 그는, 예로부터 군주나 귀족에게 예속되어 있었던 직능씨족(職能氏族)을 길드적 공인집단으로 완성시켜 그 최고 지도자로서 겸애(兼愛)와 비공(非攻) 실현을 위해 왕족과 귀족을 설득하고, 침략당하는 나라를 돕는 성곽수어(城郭守禦)와 같은 실천 활동을 지도하였다. 현대적으로 풀어 말하면 노동조합의 이익과 권리를 강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목자의 사상

목자의 사상은 당시에 상당히 급진적인 데가 있었다. 그의 사상을 넷으로 나눠 하나씩 보고자 한다.

먼저 겸애설(兼愛說)은 무차별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목자는 공자의 인(仁)과 의(義)를 처음에는 인정하였으나 비판하게 되었다. 공자의 인(仁)은 차등이 있는 사랑이라서 먼저 사랑할 사람이 있고, 나중에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자는 미워할 자들은 능히 미워하는 것이 인이라고 하였다. 이에 목자는 공자가 말하는 인(仁)은 차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동등한 사랑이라는 이상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에 대해서 목자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요임금이나 순임금 등의 예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한 것이다.

두 번째로 목자의 비공론(非攻論)을 들 수 있다. 이는 타국, 타인에 대해 공격을 하지 말자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이를 중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이익)이 안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도 읽고 싶다. 전쟁은 공보다 비공이 많다는 논리로 확대된다. 목자는 전쟁의 폐해를 나열하면서 반전론을 펼친 인물이다. 겸애설도 전쟁을 막기 위한 근

본적인 방책이라 할 수 있다. 전쟁에서 적군을 죽여야 하는 상황은 겸애를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면 전쟁이 정당화될 수 없고 또 일어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유가가 주의 천명사상을 수용했다면 목자는 이를 거부했다. 이것이 비명론(非命論)이다. 목자는 상벌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면 누가 벌을 피하기 위해 죄를 짓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이 운명만 말하면서 불합리한 사회 구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퇴보한다. 목자는 “지금 천하의 군자들이 진실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피해를 없애 버리려고 한다면, 운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을 힘써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끔 목자는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는 그의 절용설(節用說) 때문이다. 절용이란 물건을 사용함에 있어 절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목자는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사치와 낭비를 경계하였다. 우리가 생필품을 만들 때, 그것의 목적을 고려하여 목적에 가장 적합하도록 만들어야지, 부수적인 것을 보태서 사치와 낭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목자는 사치를 일삼는 지배층을 준열하게 비판하였다. 절용설(節用說) 또한 겸애(兼愛)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의미를 지닌다. 내가 낭비와 사치를 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될 수 있으면 검소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한국사회와 목자 - 차이, 차별, 갈등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2,000년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생각을 지금-여기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다면 목자의 사상을 온고지신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을 변용하여 적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 부분부터 파악해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는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남녀 갈등까지 불거지는 등 갈등사회로 치닫고 있다. 이 갈등들은 대체적으로 차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은 기득권층이 차별을 구조화, 제도화하여 처음부터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믿어 기득권층을 불신한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일자리, 부동산을 비롯한 사회적 자원을 독점하여 그 희소자원에 접근할 기회 자체를 원천봉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 또한 구조적 차별이라는 것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남녀 갈등도 오랜 세월 동안 구조화되고 만연한 성차별 때문에 여성이 소외되

었다는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퍼머티브 액션 혹은 정치적 올바름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왔다는 남성의 피해의식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한국사회의 여러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해결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획기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이고 여러 이해관계가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묵자의 겸애사상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즉효약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차별 문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가질 수 있다. 흔히 차이와 차별은 다른 것이라고 한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2,000년 전의 묵자는 함께한다는 의미의 겸(兼)과 차별한다는 의미의 별(別)을 구분하였다. 묵자의 겸애사상에서 필자는 '애'보다 '겸'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사랑한다는 의미를 지닌 '애'는 실천적 측면이 강하다. 문제는 이 실천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다. '겸'은 의식, 인식의 차원이다. 함께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함께한다'는 겸은 완전히 똑같아서 함께한다는 인식일까? 이에 대하여 묵자가 따로 생각을 밝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겸애'라는 말의 구조와 묵자의 사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겸'은 차이를 알고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니까, 더 넓히면 같은 인간이니까 적어도 미워하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는 적극적 인식으로 파악된다.

차이가 차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묵자의 '겸'을 이해하고 싶다. 인간은 같은 것에 안도하고 다른 것에 불안함을 느끼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럼에도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묵자의 겸애사상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해 보인다.

한국사회와 묵자 - 새로운 공리주의의 필요성

묵자의 비명론과 비공론을 잘 살펴보면 그의 실용주의적 태도, 더 나아가서 공리주의적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유가의 천명사상은 자칫 무대책한 낙관론으로 왜곡될 수 있다. 묵자는 순자처럼 예치를 강조하지 않았고 상양이나 한비자처럼 법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나, 묵자는 비명론을 들며 사회구조의 제도적 개혁을 강조하였다. 묵자의 비공론도 걸만 보면 그를 이상주의적 평화주의자로 오해하게 하나 묵자는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각

종 무기 제조에도 능수능란했다. 실제로 그가 공격무기보다 방어무기 개발에 힘썼다는 사실이 문헌에 나타난다. 경향신문의 논설위원 이기환도 한 칼럼에서 작년 말에 중국이 쏘아 올린 양자위성 '모쯔'가 묵자의 중국어 발음임을 밝히며 묵자가 개발한 다양한 무기를 소개한 바 있다.

공자의 인은 도덕적 정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맹자의 측은지심도 인간 본성의 연민과 닿아 있다. 유가의 인은 혈연에 기반한 차별적 사랑을 옹호한다. 회고주의자 공자는 주나라의 종법제도를 이상화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묵자는 도덕적 정감에 기반한 인의 한계를 비판하며 이해타산과 결부된 비정감적 의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유가가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당위를 설파한 데에 반해 묵자는 싸우지 않고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게 상호 이익이 된다고 하여 공동체 차원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공공의 이익, 즉 공익 개념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묵자의 언설로는 '겸상애하면 교상리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풀어쓰면 '함께 서로 사랑하면 그게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이다.

서구적 개인주의의 유입과 왜곡된 유가적 가족 이기주의의 혼종은 한국사회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배타주의를 낳았다. 끼리끼리 이익을 도모할 때는 여전히 정감에 호소하면서도 차별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는 철갑 뒤에 숨는다.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사실상 개인주의를 사상적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대립될 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묵자의 사상은 공동체주의의 부분이 다소 이상적이기는 하나 중국적으로는 이익에 호소하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제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다.

한국사회와 묵자 - 미니멀리즘적인 삶

거창한 사회개혁은 힘들다 쳐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묵자의 사상 중 주목할 대목이 있다. 절약을 강조한 그는 절용뿐만 아니라 비약을 주장하였다. 묵자는 공자가 중시한 예악의 무용성을 비악(非樂)이라 칭하며 지배계급의 허영과 과도한 사치, 허위식 등을 비판하였다. 예악으로 성정을 가지려하게 하기 이전에 예악을 베풀기 위하여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을 수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는 묵자의 비악을 다르게 해석하고 싶다. 우리 사회는 소비사회이다. 즉 끊임없는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경제체제가 유지되는 사회라는 것이다. 소비사회에서 마케팅을 필수이고 어쩌면 전부이다. 자본은 지속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많은 자원을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 싶어 하도록 욕망을 자극하고 창출하는데 투자한다. 그 결과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소비를 하며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무관한 소비를 하며 자신이 산 물건에 파묻혀 꼼짝도 못 하는 삶을 산다. 일본에서 이미 필요최소한의 물건으로만 살고 불필요한 소비를 대폭 줄이는 정리하는 삶, 미니멀리즘적인 삶을 주창하는 운동이 유행했다. 묵자의 비악사상은 보다 본질적인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소비하기 위해 벌어야 하고 벌기 위해 타인과 경쟁하는 삶, 타인을 타자화시켜 적대하는 삶의 끝은 어디일까? 경쟁사회, 소비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게 과연 정답일까? 이 질문에 대해 묵자는 무엇이라고 답할까? ☞